

STORY.01

과탐과 선택자
의대는 어떻게 가는가?

김영진
[서울대 의예]

양경민
[서울대 의예]

<자기소개>

고은 원장

오늘 인터뷰 대상자는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의대죠. 과탐과 과목 선택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낸 두 학생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민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성 자연 28반에서 공부했던 양경민이라고 합니다.

영진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 7반에서 공부했던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고은 원장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경민

저는 처음에 인터넷 창을 띄워서 부모님이랑 함께 확인했는데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그날 정말 기쁘고 저에게 있어선 정말 좋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고은 원장

울었어요?

경민

울진 않았습시다.

영진

양경민 친구 말처럼 정말 실감도 안 나고 꿈 같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의대 지원 이유 >

고은 원장

서울대에도 여러 학과가 있지만 의예를 지망을 했던 말이지요. 서울대 의예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민

저는 꿈이 의사라 하기란 어렵고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의 권유 그리고 강남대성학원에서든 여기를 진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추천을 받고 한 번 지원해보자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저는 평소에도 힘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관심사가 컴퓨터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는데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가 대표적인 것이 의료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 대학이 있는 의대를 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대 도전에 발목 잡혔던 이유 >

고은 원장

각자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 못하고 발목 잡혔던 것 같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경민

제가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옆에 사람들이 놀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학원에서 꾸준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영진

저희 현역 수능이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국어를 풀면서도 딱히 어렵다는 생각도 못 했고 편하게 보다가 나온 줄 알았는데 채점해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구나' 많은 문제를 틀리고 나서 다시 재수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학과 명확한 근거가 있고 어떤 틀이 있고 그런 생각에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 의대 합격 성공 요인 >

고은 원장

이번 입시에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영진

'이것만은 꼭 하고 나와야 한다', '이것만은 꼭 생각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도 잠도 잘 자고 또 수능 날도 정말 편안하게 운전면허 시험보다 더 안 떨리는 정도로 시험을 봤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은 원장

운전면허증 땀어요?

영진

저 운전면허증은 두 번 떨어졌어요 운전면허 따는 게 오히려 수능보다 훨씬 긴장됐던 것 같아요

경민

저는 사실 수능을 작년에 안 봤어요. 강남대성에서 처음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수능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 보는 문제들도 많고 이게 왜 틀렸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럴 때마다 오답 노트도 만들고 개념 정리를 하면서 틀린 이유를 찾아가고 그리고 학원에서 워낙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 보면서 굉장히 습관이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틀린 것을 찾고 복귀하고 다시 문제를 푸는 것을 통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은 원장

수능 공부를 사실 재수를 하면서 거의 처음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경민
네

고은 원장

그런 학생들에게 본인이 팁을 준다면?

경민

일단은 수능 공부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하나의 벽 같고 저도 처음 수능을 접했을 때 엄청 큰 성이 있는데 문이 없는 거기를 들어가는 느낌이었던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공부를 하고 개념을 처음부터 정리하다 보면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벽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노베이스라 걱정하지 말고 대성학원같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면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 원장

그럼 양경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능 성적과 금년의 수능 성적의 차이는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시험을 안 봤었으니까.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진 학생은 얼마나 혹시 차이가 나요?

영진

작년 수능 대비 이번 수능에서 백분위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니까 20%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오르기 했구나!' 제가 20점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과탐을 둘 다 100, 100으로 쳤을 때, 그리고 제가 현역 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평균 백분위가 9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 93%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재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재수를 했는데 평균 백분위가 99% 정도가 나온 거죠.

< 기억에 남는 의대 면접 질문 >

고은 원장

서울대 의예는 인적성 면접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인상에 남는 질문은?

경민

'의사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이나' 물어봤을 때 제가 '의사가 필요한 것은 봉사와 헌신, 그리고 조직 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에 따른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진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네요' 하고 나왔던 게 (기억에 남네요.)
면접관님들이 '마지막 기회인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갈거니?' 이러셔서 정말 재미 있으면서도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 과탐II 과목의 선택과 이유, 공부방법, 유의사항 >

고은 원장

과탐 조합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과탐 조합을 왜 이번 수능에 그 두 과목으로 택했으며, 어떤 사항에 유의하면서 공부했는지?

영진

현역 때는 '생명과학 I'하고 '화학 II'를 골랐었는데요. 확실히 '화학 II'가 II과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고 나름 재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치중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II과목과 같이하려면 지구과학이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은 덜 소요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I'하고 같이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II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과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조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은 원장

그러면 원래는 '화학 II', '생명과학 I'이었는데, '화학 II', '지구과학 I'로 바꾼 거잖아요?

영진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구과학 I'로 바꾼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천체 같은 것도 알아보는 면도 재미있고 그래서 재미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경민

저는 수능 공부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찾아보니까 ‘물리 I’ 이랑 II 과목 중에서 ‘화학 II’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화학 II’가 사실 계산이 많긴 하지만 툴만 익히면 외울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서 ‘화학 II’를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사실은 ‘화학 II’ 같은 경우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고 그리고 학원에서 II 과목 콘텐츠를 줘서 그것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대성학원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 >

고은 원장

콘텐츠를 포함해서 대성학원을 다니는 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경민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 분위기, 자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 공부를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잡념이라는 게 덜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 시스템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 있거나 고민 있을 때 그리고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이런 일 있을 때 심정적인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 사실은 과탐 II 선택자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준다면 지, 이런 식으로의 콘텐츠 해시태그 모의고사랑 1720 두 개를 풀면서 기출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영진

저는 첫 번째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들어오신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의 다양한 풀이법을 보면서 다들 기출문제를 한 번씩 다뤄주시니까, 어떤 풀이가 가장 빠르는지 비교를 하고 나는 어떤 풀이를 익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정말 대성학원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양의 모의고사 인데요. 앞서 말했던 다양한 방법을 쉰어서 그것을 써 보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어떤 다양한 문제의 답지와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구나’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풀이는 짧고 해서 얻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 말을 하면 해시태그 1720이나 해시태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 되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수능 치면서 이걸 대성이 출제를 했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 슬럼프의 시기와 극복 방법 >

고은 원장

슬럼프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 슬럼프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민

9월 평가원을 칠 때쯤 혼란이 많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괴감도 들고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온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철학적으로 고민도 많이 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잡념이 들 때가 있었는데,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좀 받아봤어요. ‘성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있다’ 이런 점이라든지 공부할 때 너무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라 대학을 가서라든지 진로 이런 것까지 이런 조언을 받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부하는 길과 슬럼프를 잡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영진

저는 사실 대성을 조기반부터 다녔거든요. 어떻게 보면 4-5월은 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기반부터 다니면 3~4달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어차피 결과 안 나오면 광인 것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 했었는데, 주변 친구들보고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9월 모의 평가 시즌에 또 한 번 잠깐 한 번 왔었어요. 그 때 모의고사 성적을 평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때 또 9월 모의 평가 당시 성적이 제 현역 때의 9월 모의 평가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변한 게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해보면서 그날그날 모든 과목을 한 번씩 다 훑자 한 번씩 다 풀자 이런 생각으로 그날그날 할 것을 해나가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 의대 진학 후 진로 >

고은 원장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경민

저는 의사가 된다면 로봇을 전공을 같이 배워서 수술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의학 관련된 로봇을 만들어서 공학적인 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진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의대를 오기로 한 것도 약간 인공지능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뇌 과학이라든지 신경적인 면이라든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인공지능적인 면이라든지 서비스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대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 >

고은 원장

마지막으로 의대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경민

결국에는 자신의 길은 정해져 있고 열심히 한다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결국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믿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꿈은 꿈대로 놔두고 그날그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감 있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수험생활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해 주시느라 고마웠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경민/영진

감사합니다.